목어

불이(不二)를 생각하며



국내외적으로 한해동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원론적 대립'이라고 본다.

정치판의 치고박는 싸움판에서부터 크게는 미국과 아프카니스칸의 대립에 이르기까지 '극단의 시대'가 올 한해도 머릿기사를 차지하였다.

일찍이 부처님은 연기법에서 인간(正業)과 자연(依報)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라고 하는 의정불이설(依正不二說)을 밝힌 바 있다. 민속전통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였으니, 천지가 나와 한 뿌리이며(天地與我同根) 만물이 나와 한 몸(萬物與我同體)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역시나 무차별적 편향이 범람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편가르기와 패거리문화, 중앙과 지방, 영남과 호남, 여성과 남성, 간척과 보존, 이성과 양성, 윗것과 아랫것, 남과 북, 전쟁과 평화, 개인과 국가, 권력과 시민…. 이들 삶과 죽음, 신과 인간, 빛과 어둠을 가로지르는 변증의 지평은 없을까.

서구문명의 무참한 살육앞에서 인디언 추장 시애틀은 일찍이 이런 연설문을 남겼다.

대지 위에 모든 것들은/ 그것이 생물체이든 무생물체이든/ 우리 인간의 형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이른바 과학과 비과학도 사실 인간의 구분법일 뿐이다. 사람과 자연의 가름도 인간 중심의 구분법일 뿐. 그래서 모든 생명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생명의 철학'이 새삼 그립다.

이슬람과 서구문명의 끝없는 대립을 지켜보면, 21세기의 동서를 잇는 신(新)실크로드의 꿈은 요원하기만 하다. 남북문제 해법 역시 지난하기만 하다.

'불이'야말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시급히 실천해야할 과제가 아닐까. 금년은 그렇다치고, 명년에는 그 '불이'적인 삶의 철학이 조금 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릴수 있으려나.

주강현 ((사)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군포교 후원조직 효율적 정비"

인터뷰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

군불교를 전담하는 조계종의 공식기구인 군불교위원회가 30일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출범한다. 이번 군불교위원회의 출범은 군승단 창설 33년만에 처음으로 조계종 산하에 군포교를 위한 전담 상설기구가 설치, 향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포교가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초대 군불교위원장으로 선출된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으로부터 군불교위원회의 앞날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군법사 퇴직후 신분 보장 제도화

◆군불교위원회의 초대 사령탑이 되셨는데 임기동안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실건지 밝혀 주십시오.

"군불교위원회는 군 불교발전을 위한 초석 다지기 모임이라는 점에서 군포교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 불교 후원단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또 예비역 법사들의 수가 25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군포교 발전에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 법사들이 퇴직 후에도 군 포교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은 군승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군 포교를 전담할 군승요원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은 군승요원들의 인력 수급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3년 뒤에는 현재 동국대 불교대 외에 중앙승가대 출신들도 군승요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불교위원회가 조계종 산하 기구로서 군 포교를 위해서 종단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을텐데요.

"종단의 군불교담당 실무기관장인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내가 논산 훈련소 군법당 주지법사로 있을 때 금산사 주지이셨던 도영 스님께서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법당 건립 불사를 해 주셨습니다. 군포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이 군 포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김태복 장군 명예 반드시 회복돼야

"김태복 장군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고등군법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고, 국방부 앞에서도 김 장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김 장군이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김 장군의 개인 신상문제를 넘어 군 포교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 장군이 명예회복을 할 때까지 적극 후원할 생각입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주목받은 만큼 활동 못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27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불교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불자의 비중을 감안할 때 불교여성개발원은 출범 당시 교계 안팎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여성 불교지도자 양성이라는 야심찬 계획도 그렇지만, 여성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 위한 사찰 내 놀이방 시설 설치 등 불교여성개발원이 내놓은 다양한 사업계획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불교여성개발원 1년

사실 불교여성개발원이 지난 1년간 펼친 사업은 적지 않다. 불교여성강좌를 비롯해 두 차례의 대중강좌를 5개월여 동안 실시했고, '사찰에서의 공동육아와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청소년교도소 교화사업 및 나눔의 집 후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타종교 단체와 연대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행진' 행사를 개최했으며, 교계 단체인 비폭력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에 합격점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초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던 사찰 내 놀이방 설치문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교계 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도 극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력투구했던 각종 교육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불교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실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 이유를 홍보 및 추진력 결여, 그리고 교육사업의 대중성 확보 부족 등으로 자체 진단하고 있다. 홍보와 추진력 결여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즉, 연구 · 교육위원회 및 대외협력위원회 등 산하 4개 위원회는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했을 뿐 유기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인적 구성상 여성 전문가가 부족한데서 오는 미숙함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중강좌 5개월 실시 호주제 폐지운동 전개

교육사업에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교육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좌내용이 어렵다보니 일반 여성 불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따라서 강좌를 여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 했다. 물론 여성단체인 이상 여성 지도자 배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출범 첫 해에 여성 불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감안했다면 불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사업을 펼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경기대 교수)은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찰 놀이방 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다보니 늦춰지고 있는 것일 뿐 계속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도 전문가와 일반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사찰 신도회와의 연계방침도 세워놓았다고 밝혔다.

이인자 원장은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1면에서 계속

재가불자 동안거



◇스님 못지않은 정진력과 용맹심으로 3개월 안거에 드는 재가불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동안거 결제를 앞둔 23일 서울 봉은사 시민선방에서 참선정진하는 불자들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단기 겨울수련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이 대부분 초발심자들이다 보니 추운 겨울 힘든 정진을 이겨내지 못해 참여율이 낮아지는 추세라면, 몇 달간의 결제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오랜 참선정진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아 오히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가자 동안거는 사찰에서 상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루 8~10시간의 정진시간을 엄수하는 대신 가정에서 오가며 수행하는 곳도 있어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선종 수사찰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3년째 재가자 동안거를 실시중인 봉은사의 전대식 업무조정실장은 "IMF관리체제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과 이로인한 가정붕괴 등 정신적인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재가자들의 안거 동참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말 등을 이용해 수시로 길상사, 강남포교원, 무불선원 등 20여개의 시민선원에서 정진하는 불자들을 비롯 3개월간 속세의 때에 찌든 번뇌를 잊고 자신과 싸우는 이들 재가자들은 한국불교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사찰에서 결제에 들지 못한 재가자들도 매순간 생활속에서 정진하면서 진정한 해제를 기약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다.

재가자 동안거 사찰

사 찰 명	정 원	연 락 처
해인사 원당암	150명	(055)932-7308
해운정사 금모선원	70명	(051)746-2256
용화사 보살선원	130명	(032)872-6061
봉은사 봉은선원	50명	(02)516-5652
홍천 금강선원	50명	(033)433-5845
통도사 부산포교원	80명	(051)816-2241
선학원 중앙선원	40명	(02)732-3327
통도사 취운선원	40명	(055)383-6479
도선사 무차선원	30명	(02)993-3161
부산 여여선원	50명	(051)740-6288
구인사	1500명	(043)423-7100
보광사 시민선방	30명	(02)993-3808
부산 안국선원	500명	(051)892-9877
서울 안국선원	500명	(02)732-0772
창원 안국선원	80명	(055)281-0772
혜원정사	50명	(051)866-7771
황대마을선원	50명	(055)963-9551
갑사 대자암	20명	(041)857-5880
서울 우곡선원	30명	(02)529-5027
보현사 보살선원	30명	(053)254-696